

# 發明振興事業의 回顧와 展望

申 錫 均

(發明學會長, 發明人)

## 1. 發明振興施策의 발자취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發明振興政策과 事業은 傳統的이며 體系의인 것이었다기 보다 지극히 理念的이며 概念的인 形態를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할 수가 있다.

發明保護를 위한 行政制度의 由來는 1908年 8月 12日 舊韓末 당시에 日本이 지배해온 統監府 特許局의 韓國特許令 公布로부터 1910年 8月 22日 韓日合邦을 거쳐 1945年 8月 15日 解放을 맞을 때까지 36年間 줄곧 日本特許局을 상대로 하는 特許出願의 個別的인 發明意慾에 맡기는 단계를 크게 넘지 못했으며 1946年 1月 22日 美軍政令 第44號로 잠시 存續했던 特許院의 暫定的인 發明保護制度, 1946年 10月 5日 美軍政令 第91號로 실시된 特許法이 우리나라 最初의 特許制度가 마련됨에 따라 國家産業發展과 民間企業의 育成保護를 위하여 必須的으로 並行되어 나가야할 發明獎勵施策이 서서히 試圖되어 왔으나 그 結果는 그렇게 滿足스러웠다고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政府에서는 世界最初로 測雨器가 發明되어 實用化되던 1442年 5月 19日을 널리 誇示하고 發明思想의 鼓吹를 위해 1957년부터 이날을 紀念하기 위해 「發明의 날」로 制定함으로써 每年 各種 行事を 展開하여 發明振興事業의 터전을 닦아왔으나 第16회에 이르던 1972년을 마지막으로 이 行事마저 1974年 3月 20日 「商工의 날」과 統合시켜 發明振興事業의 特性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發明考案으로 權利化하여 企業化를 助長하고 나아가서는 産業發展을 促進시키기 위해 1958年 3月 11日 發明保護法을 公布實施하였고 이 發明보호법이 지닌 效力은 대단히 커서 外國에서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劃期的인 獎勵施策이었다.

즉 優秀한 發明品으로 인정될 경우 特許는 事業開始日로부터 5年間, 實用新案은 3年間 營業稅, 所得稅, 物品稅를 免除받을 수가 있었고 또한 國內發明品이 外國에서 生産되어 國內로 輸入되는 경우 關稅까지도 免除하는 등 稅制, 金融 및 資材의 支援까지도 優先的으로 配慮해 주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너무 廣範圍하게 適用됨에 따라 誤用되는 경향이 나타나자 國家稅收入에 蹉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모처럼의 發明保護法은 1966年 1月 1日 租稅減免規制法의 公布施行으로 遺憾스럽지도 그 機能을 상실하게 되었다.

한편 1959年 2月에는 商工部에다 發明賞審査委員會를 마련하고 産業發展과 國民生活向上에 寄與하는 發明들을 獎勵하기 위하여 發明賞制度를 規定化하였고 1962年 3月 22日에는 特許補償審議委員, 1964年 5月 8日에는 工業所有權審議委員會를 構成하는 一聯의 發明振興事業을 政府的 次元에서 施策化하기에 이르렀다.

이 밖에도 政府는 보다 實質的이며 具體的인 發明을 獎勵하기 위한 公務員職務發明補償規程을 1972年 12月 4日에 마련하여 實施함으로써 이것을 始發로 하여 社內 職務發明補償制度를 企業에서까지 漸次 擴散하여 實施業體가 늘어가

고 있다.

한편 政府에서는 發明振興과 發明風土造成을 위해 1968~1972年 사이에 1261件에 대해 7,745萬원의 發明, 實用新案試作補助金を 科學技術處를 통해 支給하였고 全國의 科學化運動事業의 一環으로 企業의 研究開發活動을 刺戟하기 위해 1972年 12月 28日 技術開發促進法을 制定公布하여 技術開發과 發明獎勵를 積極化하였다.

## 2. 發明振興事業의 課題

앞에서 指摘한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發明振興 施策 및 關聯事業은 그 必要性이나 當爲性에도 不拘하고 發明人을 保護育成하고 發明의 企業化를 促進하는데 制度的으로 未洽한 點이 많았고 더우기 發明振興施策이나 關聯制度를 受容해야 할 發明人, 企業人 그리고 一般國民의 認識이 不足하여 運用上에 여러가지 問題點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國家産業과 企業의 發展을 위해서는 技術開發을 바탕으로 하는 國際競爭力의 強化가 時急한 課題로 擡頭되었고 國內技術蓄積은 發明風土造成과 特許制度의 發展이 이루어진 바탕위에서만이 可能하다고 보아 지난 1977年 3月에 商工部 特許局을 特許廳으로 昇格 發足하기에 이르렀다.

特許廳에서는 우리나라 特許行政을 管掌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發明 등의 出願을 審査하여 特許權을 賦與하고 發明家の 權利를 保護해 줌으로써 우리나라 發明風土造成에 큰 몫을 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發明振興施策을 推進하고 있는 特許權은 發足 當時부터는 企業發明 및 企業特許管理를 促進시키기 위하여 特許專擔部署를 設置勸獎하는데 置重함으로써 社內特許專擔部署를 두고 專擔要員을 確保하는 企業이 날로 增加하는 큰

成果를 거둔바 있으나 發明人을 위해서 法的으로 는 發明保護法을 現實에 맞게 復活해 주는 것과 發明品の 企業化를 助長하는 金融 및 稅制支援, 그리고 政府豫算에 의한 發明試作品製作補助金 支給 問題들은 그 施行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80年代에 들어서면서 世界 各國間에 産業技術의 競爭은 날로 熾烈해지고 先進技術保有國은 우리가 必要로 하는 核心技術의 供與나 移轉을 꺼리는 傾向이 짙어져가고 있어 우리가 持續적으로 輸出을 伸張해 나가려면 새로운 發明을 바탕으로한 技術開發과 經營合理化를 통한 企業의 國際競爭力強化가 그 어느 때보다 時急하게 되었다.

따라서 政府는 무엇보다 發明을 獎勵하고 發明人을 保護育成하며 나아가서는 企業의 技術開發을 促進시키기 위한 發明振興綜合施策을 세우고 그 基本方向에서 첫째 全國民의 發明思想昂揚 및 發明意慾의 鼓吹로서 發明風土를 造成하고 發明人口底邊을 擴大하며 둘째로 發明의 生活化와 先進技術의 消化改良으로 아이디어를 積極開發하며 新發明을 獎勵保護하고 셋째로 發明의 企業化促進으로 技術開發促進과 産業國家建設에 이바지할 것을 目標로 삼고 있다.

이에 따른 發明振興事業의 推進計劃 및 實績으로서는 82년부터 이미 5月 19日의 發明의 날을 復活하여 發明有功者, 優秀發明人에게 褒賞하는 등 特許廳, 發明特許協會가 主管하여 大대의 發明의 날 行事를 開催하였고 지난 9月에는 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開催와 뉴욕, 제네바에서의 國際發明品展示會에 出品토록 한 結果 至大한 發明振興成果를 擧揚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에는 優秀發明의 企業化와 發明人의 研究開發, 國內外出願을 支援하기 위해 發明試作品製作補助, 海外出願獎勵補助, 海外展示會入賞者

에 대한 特別補償金支給, 零細發明人의 出願 및 登錄料免除 등 政府豫算으로 이들에게 補助金を 支給해 줌으로써 發明人의 保護育成施策을 積極 展開하였다.

이와같은 發明振興事業의 組織的이고 體系的인 運營을 위하여 韓國特許協會를 韓國發明特許協會로 改編하여 우리나라 企業人和 發明人이 모두 會員으로 參與하도록 하고 發明風土造成, 發明人의 士氣振作 및 權益保護, 企業發明의 活性化에 밑거름이 될 球心體를 이룩하였다.

### 3. 發明振興事業의 展望

지금까지의 發明振興施策을 土臺로 하여 오는 83년부터는 發明振興事業을 보다 充實하고 多角的으로 展開해야 할 必要性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政府次元에서의 發明振興基金을 早速히 造成하고 이를 民間企業이나 個人篤志家, 一般에게까지 擴散하여 一定 基金을 母體로 하여 年次的으로 增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發明振興事業을 위해 新規로서 올해 發明振興基金을 政府豫算에다 要請하였으나 豫算上의 어려움이 있어 次期로 미루어졌다고 하는 바 發明人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우리나라 技術振興을 위해서 發明風土造成과 發明意慾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는 見地에서 發明振興基金을 造成하는 課題만큼 重要하고도 時急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反問하고 싶다.

多幸히 發明의 날 行事, 全國優秀發明展示會, 發明品常設展示場, 優秀發明試作品製作補助, 海外出願獎勵補助, 國際發明展示會入賞金支給 등을 위한 事業費를 政府豫算에서 支援해 주기로 한 것은 우리나라 發明振興에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가서는 技術開發에 活力素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確信한다.

이와같은 狀況에서도 아쉬운 것은 豫算上의 制限을 받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多角的이고 알찬 發明振興事業을 推進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豫算支援이 配慮되었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까지 發明振興事業은 特許廳의 豫算支援과 發明特許協會의 自體事業費로서 兩機關이 共同主催 또는 主管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關聯事業을 民間主導로서 責任性 있고 自律的으로 運營해 나갈 수 있는 體制로 轉換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리하여 企業에서나 發明人이 研究開發한 成果가 發明特許協會에서 推進하는 事業을 통하여 圓滑하게 弘報가 되고 國內外的으로 流通이 됨으로써 技術開發을 促進하여 國家産業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는 83년은 오랫동안 累積되어 온 不況을 딛고 우리나라가 技術發展의 土臺위에서 國際競爭을 할 수 있는 輿件을 造成한다는 意味에서 우리 企業人들과 發明人들은 그 어느 때보다 熱心히 努力하여 技術革新과 技術蓄積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政府와 關係機關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發明振興事業에 全力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본다.

紙面을 빌어 바라고 싶은 것은 發明品の 企業化를 위한 前段階로서 이루어져야 할 試作品製作의 補助限度를 높여서 品質이 優秀하고 經濟性이 있는 試作品이 나와야 할 것이며 發明品の 海外流通을 통한 技術 및 商品輸出을 促進시키기 위해서 嚴正한 審査를 거쳐 國際發明展에 出品하는 出品者에게 出品料까지 補助해 주는 것이 所望스럽다 하겠다.

그 밖에도 資金이 不足한 發明人들의 企業化를 위해서 發明品을 保證으로 하는 등의 金融支援이 새로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 懇切하다.